

# 모세가 렘넌트 후대에게 다시 반복한 호렘산 언약

## -복음으로 여는 신명기-

신명기 6:4-9, 마태복음 4:1-11

정윤돈 목사님

“우주 만물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특별히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주셔서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지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살리는 복음 전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오경 중 5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신명기서를 중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나누겠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인용한 말씀은 모두 신명기 말씀이었다. 신명기서의 주요 핵심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신약에서도 80번 이상 인용되고 있다. 그만큼 신명기서는 예수님도 사도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의 말씀이었다. 신명기서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후대 렘넌트들에게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반복한 율법의 말씀과 이 말씀을 지켰을 때 받을 응답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다. 또한 신명기는 모세가 후대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1.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호렘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들 중에서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 알아보겠다.** 십계명은 613가지 율법을 대표하는 계명의 말씀이다. 대부분의 율법의 말씀들은 십계명 안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한 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이다. 이번 주는 십계명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적용하고 포럼해 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모세는 신명기 5장 1절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꺼내고 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래서 우리들도 이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할 것이다. 이 십계명은 호렘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두 개의 판에 기록하신 말씀이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일 사십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말씀의 내용과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시대적, 신학적, 복음인 관점에서 십계명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1) 1계명은 신명기 5장 7절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이다.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할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나 우주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다른 신들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이 있는가? 당장 버리시기 바란다. 그 신들은 창조주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신들은 우리를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

(2) 2계명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다. ‘나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인간이 섬기고 절할 수 있는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천사도 인간의 종이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사단과 세상에 내 영혼을 파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단과 귀신을 섬기면 그 결과는 재앙과 저주이기 때문이다.

(3) 3계명은 신명기 5장 11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이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려라’ 당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당시에 많은 민족들은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른 민족이나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날에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욕하거나, 하나님과 교회를 욕보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즉, 복음과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4) 다음은 4계명이다.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이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옛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셔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이 일을 쉬는 날이다. 안식일에 쉬는 것은 나머지 6일 동안에는 힘써 일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6일 창조를 기억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애굽과 같은 세상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 받았다는 구원의 고백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다.

(5)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다. 신명기 5장 16절이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부모를 조건 없이 공경하여야 한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과 같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쉽고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는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셨다.

(6) 6계명은 신명기 5장 17절의 ‘살인하지 말지니라’이다. 자살도 살인이다. 이 계명은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담고 있다. 많은 시대와 나라에서는 인간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이념과 사상과 전통이 있는 사람들과 종족들이 많이 있다. 공산주의, 무슬림, 힌두교, 자본주의의 물질중심의 사상도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념과 사상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7) 7계명은 신명기 5장 18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이다. 간음은 영적으로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가정과 후대이다. 사탄은 우상과 타락과 간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가정과 행복과 후대를 멸망시키려하고 있다. 그래서 사탄의 최고 전략이 바로 우상숭배와 간음인 것이다.

(8) 8계명은 신명기 5장 19절의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이다. 도둑질은 물질

적인 탐욕의 절정이다. 도둑질하는 사람의 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9) 9계명은 신명기 5장 20절의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이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이다.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문제를 회피하고,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며 거짓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다.

(10) 10계명은 신명기 5장 21절의 '탐내지 말지니라'이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계명의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평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열 번째 계명은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큰 두 번째에서는 율법을 해석하는 4가지 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 율법과 율법주의이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꼭 지켜야 하는 법이고 질서이고 윤리이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율법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가장 큰 잘못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신앙과 삶의 가이드라인이지 율법을 완벽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과 십계명의 더 큰 역할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로마서 3장 20절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 율법 중에는 신약시대 때 없어진 규례들이 있다. 피 제사도 없어졌다. 성막도 없어졌다. 정결법도 없어졌다.

(3) 모세의 율법 중에는 변경된 율법이 있다. 그 예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제사와 절기가 예배와 새로운 절기로 바뀌었다.

(4) 네 번째로 율법을 보는 눈은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 신약시대와 복음시대에는 승화된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승화시켜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승화된 말씀이 완전복음을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해야 할 전도자의 삶인 것이다. 그리고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만 신약시대에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 즉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무시로 기도하는 날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5) 그렇다면 오늘 날 우리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적용해야 할까? 십계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안 지키는 삶보다 현실적으로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쉬운 길을 주신 것이다. 오늘 날 완전복음을 이해한 우리들은 승화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승화된 율법과 십계명의 완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겠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또 로마서 13장 10절을 보겠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러한 사랑을 친히 실천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인으로 모신 분들은 이러한 삶도 되어질 것이다.

## 3. 큰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받을 응답과 축복은 무엇일까?

모세는 죽기 전에 앞으로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응답과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율법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했던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말씀들을 다 지킬 수는 없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번 주에는 먼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았던 응답도 포함해 보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떠한 축복들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을까?

(1) 가나인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가 거짓 아니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하고 내가 알지 않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

(2)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다. 여기서는 좋은 땅을 주시고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사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는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도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린다.

(3)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신명기 15장 4절을 보겠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도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받기를 축원드리겠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을 언약은 후대들에게 완전복음과 율법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미리보기)
2. Vision,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와 모든 비어있는 현장을 미리보고 그 현장을 살릴 율법의 말씀과 완전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미리갯기)
3. Dream, 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묵상하고 조금이라도 실천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꿈은 성취될 것이다.(미리누림)
4. Image, 이미지이다. 서밋타임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목표가 생생하게 보일 때까지 먼저 집중하여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기 하시기 바란다.(미리정복)
5. Practice, 실천이다. 우리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3서밋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다. 그것은 영어유치원과 서밋스쿨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3기업팀과 인턴십팀이다. 이를 위한 포럼이 특별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미리성취)

이번 한주간도 후대들에게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복음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 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더 복음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며,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 정말로 7명의 램네티와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능가하는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